

# 농어촌공 영천지사, '작업장 위험성평가' 실시

✎ 김병기 기자 | ⓒ 승인 2026.05.27 14:05

## 작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개선 통한 산업재해 예방



(영천=김병기 기자)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작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.

3월부터 3개월 동안 청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 1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유해·위험요인 발굴, 감소대책 실행, 공유, 기록 등의 절차를 따라 효과적으로 완료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썼다.

전춘희 영천지사장은 “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작업장 무재해를 달성하고,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안전문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김병기 기자 pc174@naver.com

